

울산힌돌교회 셀모임 나눔지

2025년 6월 15일 주간

셀 모임은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나누는 시간입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주일 말씀을 되새김질 하는 시간입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시간입니다.
영적인 하나 됨이 있는 시간, 위로와 공감에 있는 따뜻한 시간이 됩시다!

인사

제가 당신의 손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제게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ICE BREAK!

본인 : 남들이 잘 모르는 나의 장점이나 장기는? / 스스로 말해 보세요.

셀원 : 내가 봐 왔던 이 사람의 장점은? / 옆에서 알려 주세요.

1. 본문 말씀 : 전도서 4:9-12

2. 나눔 제목 :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교회 생활은 한마디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좋으면 교회 생활은 행복해 지고 관계가 나쁘면 교회 생활은 불행해 집니다.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교회 오는 것이 것처럼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삼겹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 합니다. 그렇다면 삼겹줄 사랑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주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하실까요?

첫째로, 하나가 될 때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4:9]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여기 상은 매상을 의미합니다. 한사람보다 두 사람이 일하면 매상이 더 오른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 두 사람이 하나가 될 때 한 사람이 만들어 내는 성과보다 훨씬 더 큰 성과를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면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눔 : 누군가의 도움으로 더 큰 일을 이루어 낸 경험은?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은 어떠하였나요?

둘째로, 하나가 될 때 쓰러져도 금방 일어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4:10]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좋은 사람이 바로 옆에 있으면 넘어졌더라도 빨리 회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요? 내가 넘어졌을 때 내게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복이고 그 누구도 쉽게 얻을 수 없는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반대로 합니다. 멀쩡하게 서 있는 사람을 다리 걸어 넘어뜨리고 잘 하고 있는 사람을 뒤에서 밀어 자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쓰러져 있으면 먼저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나눔 : 농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셋째로, 하나가 될 때 서로 따뜻함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전 4:11]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서로에게 따뜻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누워있으면 춥지만 두 사람이 누우면 체온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 싱은 추위에 죽을 것 같은 노인을 업고 내려가 둘 다 살았습니다.

나눔 : 선다 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점은? 도와주었다가 같이 유익을 본 경험은?

3. 다함께 기도 - 기도부장 인도

1)우리 흰돌의 모든 가족들이 다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살게 하소서.

2)원로 목사님 선교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에게 더 큰 영성과 지성과 체력을 주소서.

3)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계속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셀모임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4. 헌금 및 광고(찬양하면서)

5. 주기도문으로 셀 모임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김영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생물을 내게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사량양기원하네 -

Copyright (c) 2002 김영범.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음악을 틀어 놓고 같이 찬양해도 됩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Being Built Together

이찬행

우리는-하나-님의-자녀 - 주 사랑안-에우-리거-할때 - 주님
우리는-주의-몸된-교회 - 모든지-체가-하나-될때 - 예수

나를사-랑하-신것-같이 - 우리 도 서로-사랑-할수-있네 -
님의마-음을-답아-가며 - 고통 과즐거-움함-께나-누네 -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이-어져- 주가 거하실-성전이되네 - 모통

잇돌되-신에-수와 하나 되게하-신성-령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

대한예수교 장로회 울산흰돌교회